

배움의 삶 · 나눔의 생활화 · 생명공동체 실현

경 기 불 교

• 발행처/ 경기불교문화원 • 이사장/ 김태제 • 발행인/ 진철희 • 편집인/ 권중서, 이기원, 이육재 • 주소/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01-3 4층
• 전화/ 031)251-1083, 257-1083 • FAX/ 031)251-1779 • http://www.paragate.org • E-mail : chin2002@hanmail.net

원광스님의 불전강좌

- 주제 : 달마사행론
- 기간 : 3개월(12주)과정
- 동참금 : 1개월 / 30.000원, 3개월 / 80.000원

원광스님 약력

- ▶ 1958년 충남 홍성 내원사 입산
- ▶ 1967년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광호스님을 은사로 원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 ▶ 1995년 삼장문서 포교원 설립, 문산을 시작으로 서울, 김포, 가평, 화천 등 군포교
- ▶ 2003년 김포 선경암 한주, 일심선원 회주
- ▶ 2004년 중앙 승가대학교 불전국역연구원 상임연구원



7월 사찰환경답사

여천 홍국사, 여수 향일암, 보길도, 달마산 미황사

- 출 발 : 2548년 7월 17일 오전 7시 경기불교문화원 앞
- 언 제 : 불기 2548(2004)년 7월 17일(토)~18일(일) (1박2일)
- 동참금 : 60,000원(숙식/여행자보험/간식/사찰입장료 포함)

7월 초

불기2548년(서기2004년) 7월 (통권제11호) / 매월 1일 발행(월보)



목탁소리

일본문화 답사기 (I)

- 오카야마(岡山)형무소 · 고라쿠엔정원 -

금당 진철희/경기불교문화원장



여주교도소 교정 협의회(회장 이상혁) 일행 20명이 일본 관서지방에 있는 오카야마 공항에 도착한 것은 6월 9일 오전 11시 10분경이다. 간단한 출국수속을 마치고 나온 시간은 12시경이며 오카야마 교도소에 도착은 약 1시경이었다. 공항 밖에서 오카야마 형무소 직원들이 두 시간 전부터 나와서 기다렸다는 말들 듣고 그냥 흘러보냈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오카야마 교도소 일행들은 우리들의 비행기 도착시간을 잘 못 알아 2시간동안 무더운 여름날 에어컨 없는 곳에서 기다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생각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힘든 것은 이야기 안하고 우리 일행들이 테러(비행기납치) 당하지 않았나하는 걱정들 하었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남을 위한 배려가 몸에 배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의 교통질서 지키기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한다. 주차장에서는 절대 공회전금지(에어컨 및 히터 사용금지)와 차를 구입할 때는 차고지증명서가 있어야하며, 노인들의 천국이라 65세 이상자가 운전 중일 때는 실버마크를 달고 다니면 서로 양보를 하여준다고 한다.

형무소까지 오는 주변에는 잘 다듬어진 전원풍경은 우리와 비슷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군데군데 아파트가 있어 시골경관을 해치고 있으나 여기는 큰 빌딩이 없는 고만고만한 건물들로만 지붕이 잇대어있는 아주 목가적인 전원풍경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간단한 기념촬영(사진참조)에 이어 교정협의회 상견례 후 점심을 하는데 메뉴는 녹차 한 잔, 카레라이스, 단무지 몇 조각, 방울토마토 몇 개, 매운 한 조각, 떠먹는 요구르트 1개 등 간단한 식사였는데 이것은 오늘 재소자들이 들었던 음식과 똑같다고 말한다.

공과 사를 확실히 구별하는 인상이 너무 인간미가 없어 보인다.

이는 작년에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갈비를 대접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었기 때문일까?

점심식사 후 교도소 내부환경을 교도소장과 협의회임원들과 같이 하였는데 건물은 34년 전에 지었지만 지금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다는 소장님의 설명과 개인독방과 다인용 방, 목욕시설, 강당, 운동장, 샤워시설 등 잘 정리된 모습을 보면서 일본에도 범죄자가 있으며 범죄유형은 한국과 대동소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를 미덕으로 삼는 일본에서도 많은 범죄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원죄는 어디서부터 오고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오카야마 형무소 견학을 마친 후 일본 3대 정원(미토의 가이라쿠민 정원, 가나가와의 겐도쿠엔정원)으로 알려진 고라쿠엔 정원에서 오카야마 영주 이케다 쓰나마사가 십수 년의 세월을 거쳐 만든 임천회유식의 정원을 거닐면서 좌우로 파랗게 자라고 있는 잔디밭과 건너편에 위풍당당하게 서있는 오카야마 성을 보면서 수원에 있는 화성을 생각해본다.

오카야마성은 400년 전 일본을 통일시킨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을 받아 우키다 히데이에가 8년에 걸쳐 완성한 일본의 대표적인 성이다.

일명 성이 까만색으로 되어있어 까마귀성이라 부른다고 하며 성의 중심을 이루는 건물인 天守閣(텐슈카구)의 구조는 북쪽으로 솟아난 불규칙한 오각형의 지형위에 2

층짜리 건물을 셋을 겹친 모양 다시 말해서 3층 6계의 건물로 높이는 20.45m이다. 세계 2차대전 중 공습으로 "텐슈카구"가 불탔으나 다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내부에는 역대 영주들의 연혁과 통치스타일이 홀로그램 등 현대적인 관람기법으로 사실감있게 전시되고 있다. (다음 회에 계속)

나무아미타불 **경인**



한방강비 전문점 고향숯불강비

대표 : 김 항 식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정자시장내
TEL : 031)256-0339 H.P : 016-425-4896

제5기 불교기초교리생 모집

개강일 : 6월 30일 수요일 / 인원 : 30명 내외
오후 7시 강사 : 전문법사
기간 : 14주(50,000원)

다 도 반

개강일 : 7월 22일 목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강사 : 윤 영 예
기간 : 5개월(100,000원)

결혼과 파경 사이

-인생은 역사의 큰 거품 속의 점막일 수 있으나-

보현진열 / 감로향사 분향주

자고로 인생의 추구나 지향은 행복에 있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자신의 보다 나은 행복을 향한 행진이다. 삶에서 많은 선택 여건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 나은 쪽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 지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모든 행동에는 자신의 행복 추구의 자연스런 선택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곧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자업자득의 책임 원리가 있다.

그런 선택의 중요성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결혼이다.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유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면, 동시에 가장 비참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결혼일 수 있다. 한 개인에서 결혼이란 절대적인 운명의 변화를 감수해야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누구나 결혼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알콩달콩한 삶의 재미를 연상하고 전통과 관례에 따라 일정한 의식을 치른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은 그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굴레 씌어진 습속에 의해 통과 의례를 거친다. 온전하게 사회적 관습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행복 추구를 위한 삶의 체계다.

그러다 보니, 그 사회적인 제도는 이념상의 이상으로 다가오면서 인생을 짓누르고 지옥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제도 안에서 서로 공평하고 편안한 관계를 이룬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행복한 것이겠지만, 사실은 그 제도 속에서 혜택 받는 쪽과 피해 받는 쪽이 있기 마련이라서, 장기적으로 수혜자는 군림하고 피해자는 악습에 매여 굴종을 요구받는 희생으로 점철한다. 아무튼 결혼 제도는 개인을 어떤 굴레에 꼼짝 못하게 매이게 하는 전통이다.

우리나라의 결혼 제도는 남존여비의 이념적인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다. 남성 쪽은 우월한 권리를 누리고 여성 쪽은 굴종의 미덕을 강요받는다. 여기서 한국 여성들은 세월이 흐를수록 엄청난 희생을 치루면서도 지옥살이를 면치 못하는 전통을 이루고 있다. 남성들은 제 맘대로 온갖 일탈의 짓들을 다하면서 가부장적인 권리를 이용해 아내들을 구박해 왔다. 한마디로 남편은 자유로운 독재자요 아내는 묵묵히 일하는 종이었다. 남편에게 온전하게 종속된 아내의 삶이란 그 남편의 행동의 질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살게 돼 있었다. 여성의 행복된 조건이 오로지 남편의 행동 양식에 달렸었다.

어떻게 여성은 이렇게 비참한 굴레 속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역사를 쓰고 있는가? 여성에게 이러한 삶의 생태를 가능케 한 이념적인 모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과 학설이 있겠지만, 나는 인류와 오랜 삶을 같이 해온 닭 사육이나 원앙새의 금실을 예로 들고 싶다. 닭의 삶의 체계는 수탉이 여러 암탉을 거느리면서 병아리들을 암탉이 양육한다. 수탉은 약간의 먹이를 마련해 주고 교미에만 힘쓰는 한량 신세다. 수탉은 방종한 사내와 흡사하다. 그래도 닭의 삶이 유지되는 것은 먹이나 동지를 우리 인간이 마련해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수탉은 믿는 토대가 있으니 그렇게 해도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과거 우리 인간들의 한량들이 그토록 방종하고 가정에 무책임하더라도 그나마 그 가정이 유지됐던 것은 대가족 사회에서 집안 어른들이 계시고 혈육들이 울타리치고 있어서 가능했었다. 가령, 남편이 무능해지면 시부모의 은혜와 보살핌 속에서 가정이 유지되곤 했었다. 사육 닭의 삶의 양식이 인간에게 영향 주었는지, 아니면 닭이 인간을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되 그 둘의 생활 모습은 참으로 비슷하다.

그러는 전통에서 언제나 결혼식에는 의례 나무로 된 원앙새 모형이 선물된다. 원앙새 금실 같이 잘 살아가라고 한다는데...사실 원앙새의 금실이란 완전히 바람둥이 남편을 대표한다. 언제부터 원앙새 모형이 금실 좋은 부부의 상징처럼 됐는지 모르겠으나, 과거 우리네 역사 속의 가정의 남정네 생활 모습과 매우 닮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없는 의식이나 생활 유행이지만 그것이 지금까지에도 우리 생활 습관 깊숙이 뿌리박혀 있다. 시대는 바뀌고 생활환경은 달라졌는데도 남정네들은 그런 이념적 이상에 매달려 헤어지지 못한 채, 가정을 파괴시키고 스스로 죽는 비참한 결과를 낳고 있다. 남편들은 전통대로 따라했지만, 왜 사태는 비참하게 끝나는가?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서 그런가?

먼저 일반 주택 생활에서 아파트 생활로 변하면서 닭 사육은 없어졌고, 결혼식도 전통 혼례에서 양식 혼례로 변하면서 원앙새 모형도 찾을 길 없어졌다. 이를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변하는 두드러진 과정이라고 한다. 대가족이 핵가족화 되면서, 혈육이나 어른의 보호막이 사라졌다. 핵가족에는 부부와 자녀의 삼각관계만이 가정을 유지하는 요소가 된다. 과거와는 달리 부부와 자녀 사이에는 그들의 사랑 같은 내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지해 가나, 보호막 같은 외적인 요인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오로지 부부와 자녀의 사이의 문제로 축소됐다. 이제 그들의 만남이나 헤어짐은 보다 자유로워졌다.

환경은 그렇게 변했는데 사람의 습관과 의식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해, 전통적인 결혼 생활 습관과 변한 환경 사이에서 고통을 연출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통적인 관습의 힘은 약화되고 현대화된 생활 구조로 변할 것인데, 언제나 새 환경에 적응치 못한 세대만이 괴로워할 것이다. 이런 과정이나 속도가 컴퓨터의 보급과 더불어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남성의 쇠락과 여성의 상승을 의미한다. 여성이 사회적으로 힘을 가질수록 남성은 밀려난다. 그래서 언젠가 남녀가 균형적으로 평등해질 수 있다. 이 평등관의 생활사이 일반적일 때까지는 술한 가정들이 파괴돼 나갈 것이다.

요즘의 가정의 해체는 여성이 주도하지만, 그 원인 제공을 남편이 한다. 남정네가 과거 전통에서 못 벗어난 채 한량 노릇하려 할 때, 아내는 반기를 들고 가정을 뛰쳐나간다. 과거 가정환경과는 사뭇 다르다. 이것은 지금껏 당연한 역사의 흐름이다. 작용이 크면 반작용도 큰 법이다. 역사의 인과라고 할까...하는 그런 메타포가 작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과거 남성들이 권리를 누렸으니 이제는 여성 쪽에서 권리 좀 누리 보자는 역사의 요청이라는 것이다. 그러해서 역사는 균형적인 흐름을 이룬다고 보겠다.

삶이 행복을 위한 행동이라면, 남녀가 행복하려고 결혼한 만큼, 역시 행복하고자 파경 할 것이다. 전에는 무거운 제도와 관습으로 혼례를 치루고 나면 이혼하지 못하게끔 짓눌렸지만, 이제는 그런 굴레에서 훨씬 자유로워졌다. 결혼의 자유와 함께 파경의 자유도 주어진다. 물론 아직도 결혼하기는 쉬워도 이혼은 어렵다는 사회적 압력이 여전히 있지만, 급속도로 변하는 환경으로 두 가지 모두 자유로울 때가 곧 도래할 것 같다. 그 압력이 무서워 결혼을 기피하거나 출산하지 않는 청년 남녀들이 많다고 하나, 그것은 짓누르는 제도와 관습에 대한 항거와 반항일 것이다. 항거를 통해 그들은 양성 평등을 부르짖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과 역사의 흐름은 바람직하다. 남녀평등의 지향을 위한 역사의 몸부림이라고 생각된다. 가족을 이루거나 가정을 해체하는 것은 남녀가 서로 자유스럽고 평등하려는 '사이의 행복관'일 것이다. 그들 남녀 사이 말고는 다른 외적인 구속이나 제도를 거부한다. 이런 과정의 연속을 거치면서 역사의 소용돌이는 다시 가족의 소중함과 그것을 유지하는 행복관을 인내력으로 견지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만남-해체-다시 만남'이라는 순환론적인 역사관에서 보면, 우리의 현실은 내일의 새로운 나아짐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렇다면 가정 해체라고 하며 말세를 외치고 호들갑떠는 이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민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구는 여전히 돌고 역사는 말없이 도도히 흐를 테니까...역사는 흐르면서 탁해졌다 맑아졌다 소용돌이쳤다 고요해졌다 하는가 보다! 인생은 그 큰 거품 속의 일부 점막일 수 있을 것이다.

경
전
강
좌

이진창 내과

원장/내과전문의 이진창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1075(기업은행2F)
Tel.031-237-3339 Fax.031-222-5228

경전강좌 (달마사행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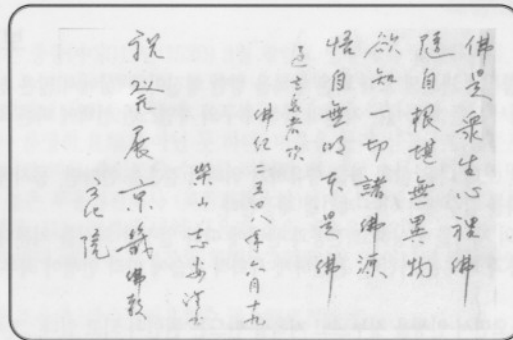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불전강좌(달마사행론) 강사: 원광스님
기간: 3개월 (80,000원)

불교의식반 (목탁,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6월 28일 개강)
강사: 권혁찬
기간: 3개월 과정 (60,000원)



불교의 대의



지안(志安)스님 /종립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여러분들께서 경기불교문화원에 모인 인연은 참으로 귀중하고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세기 최고의 과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있습니다. 물리학자죠, 이 사람이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물리학분야의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이론을 새로 발견했는데, 21세 땀가 온몸의 근육이 마비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당시 의사가 선고하기를 앞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기적같이 살아서 지금까지 과학자의 두뇌회전과 정신자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요.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과학적 업적을 많이 쌓은 최대의 과학자가 되었냐고 물었더니 호킹박사가 하는 말이 '그건 별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대단한거냐 하고 물었더니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우리가 장애자나 의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말 했던 사람이 살아서 과학자가 된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불교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모여 있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이 장소, 이곳에 모여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기적 같은 일 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교문화원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해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불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활동하고 동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교는 인간을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일상생활 문제를 정중한 안목으로 생각해보자는 자기 사고의 방향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 불교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기존의 세습적이고 도식적인 틀이 있는데

그러한 체제 속에서 사람은 자연히 그 속의 유행이나 풍습에 맞춰서 인격이 형성이 되지요. 그러니까 이미 주변과 같이 동화되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는 그 시대의 상식적인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이게 아니예요. 불교는 삶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직시하자는 사고방식을 가질 때 불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유행이나 그 시대의 기준에서 이미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형식으로 정의가 되어있어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는 불교의 본질에서는 사실 많이 이탈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가 다른 종교보다는 인간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추구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자기화 되어야 한다는 것

기도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많은 경전이 있어도 내 것으로 소화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교를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를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나와 불교가 일치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해요.

인생살이는 일정한 노선을 유자하고 살아야 됩니다. 종교를 한다는 것은 정성의 일정한 노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노선을 안 하겠다고 하면 불교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불교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노선을 벗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데로 하는 게... 왜곡 하니까 이웃 종교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수도원에 고양이들 자유롭게 기르고 있었어요. 수도사들이.. 근데 미사를 보려고 하는데 이 고양이들이 성당 안을 자꾸 돌아다니면서 울음소리를 내고, 똥, 오줌을 지리고 하면서 미사를 방해하더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1세대 수도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고양이들을 목에다가 줄 걸어서 기둥에 묶어놓고 미사를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미사 때 방해도 안받고 조용하게 볼 수 있으니 매번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흘러서 1세대 수도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 후에 어떤 아이러니한 풍습이 생겼냐 하면 후대 수도사들이 미사를 볼 때, 아 전에는 미사를 볼 때 항상 고양이를 묶어놓고 미사를 보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미사를 볼 적마다 고양이를 한 마리씩 사 와서 기둥에 묶어놓고 미사를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곡된 것이 사소한거라도 문제가 생겨요.

우리 불자님들은 이렇게 왜곡되고 올바르게 않은 것에 휩쓸리지 말고 불도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경기
불교



변호사 조복행

031)213-2211~3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82-2 남당빌딩 3층



양재홍 치과의원

사무실 : 241-1004 /

원장실 : 248-1616



사찰답사

고찰(건봉사)과 신찰(휴휴암)을 답사한 하루...

조성남 / 본원 사찰환경답사 반원

6월의 사찰환경답사는 그 어느 때 보다 감상적이고 시간의 흐름을 훌쩍 뛰어넘은 사찰기행이었다. 그동안 귀로만 들던 우리나라 동쪽 최북단에 자리한 고찰 건봉사를 답사하기위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출발하기 하루 전 TV뉴스에서 날씨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남쪽에서는 태풍이 올라오고 전국에 폭우가 쏟아진다는 일기예보였다. 갇힌지 말건지 망설여진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부처님곁에 와 있었다.

다행이도 이른 아침 출발장소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답사하기에는 덥지도 않고 좋은 날씨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30~40명 안팎이던 불자들이 오늘은 모두 21명 뿐... 날씨 탓에 미리부터 겁을 먹은 모양이다.

어쨌든 우리 부자들은 수원을 출발하여 동쪽으로 동쪽으로 달리고 있었다. 1시간 반이나 지났을까...버스차창 밖으로 보이는 산야는 내 시야를 매혹시켰다.

간밤의 폭우로 인하여 모든 산야는 깨끗하게 몸단장을 하였나보다. 산자락 마다마다 하얀 운무의 무지개가 피어오르면서 장관을 연출한다. 한쪽의 동양화가 아닌 열 두쪽의 동양화를 보는 듯 하다. 진부령고개를 넘어 굽이굽이 가다보니 어느덧 출발한지 4시간 드디어 오랜역사와 수난을 겪은 고찰중의 고찰 건봉사에 도착하였다.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서기 520년)에 창건되어 약 1500년 의 세월을 지켜온 명찰이다. 건봉사는 1820인이 참여한 염불만일회의 효시이며 임진왜란때 호국의 본거지였다고 한다. 1650년 통도사에서 왜구가 약탈해 갔던 치아사리를 되찾아 이 절에 봉안한 곳이다.

사찰의 풍경은 너무나 멋진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건봉사는 옛 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듯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한 성철 스님의 시 한 귀절이 떠오른다.

그 옛날 고승들의 은적은 찾을 길이 없지만 총무스님의 설법을 통해서 건봉사의 흘러온 역사와 세월의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총무스님의 설법 중 지네의 앞다리 뒷다리 이야기는 우리 불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총무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고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알게 되었다.

건봉사에서 공양을 마친 뒤 곧바로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에 위치한 휴휴암으로 향했다.

휴휴암은 늘 푸른 동해안 해변가에 위치하여 파도소리와 벌님들을 벗 삼아 불자들을 심취하게 하는 곳 이다.

이곳은 8년전 주지 흥법스님이 이곳에 암자를 짓고 기도를 드리던 중 4년째 되던 해에 무지개가 뜨는 바다에 나투하여 휴식을 취하는 관세음보살상을 발견했다는 곳이다.

관세음보살상은 길이가 13m이고 그 옆에 부처님을 바라보는 거북이바위, 부처님발바위, 그리고 발가락바위, 주먹바위 등 온갖 기이한 모습들의 바위와 바다가 어우러져있는 곳이다.

이곳 주지스님의 말씀은 휴휴암은 몸도 마음도 모두 놓고 쉬고 또 쉬는 뜻이라 한다.

미워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시기과 질투, 갈등과 대립, 기뻐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마음, 보는것도, 듣는것도, 잘나거나, 못 나거나 팔만사천의 무진번뇌를 쉬고 또 쉬는 뜻에서 휴휴암이라고 칭 하였다고 한다.

휴휴암은 최근에 발견된 곳으로 전국각지에서 소문을 듣고 불자님,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들 찾는다고 한다.

6월의 사찰환경답사는 그 어느 때 보다 뜻 깊은 답사기행이었고 소중한 인연이었다.

경기불교문화원 사찰환경답사프로그램은 나에게 있어서는 멀게만 느껴졌던 불교문화와 사상을 체험적인 사찰답사를 통해서 좀 더 쉽고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사찰환경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시고 애쓰시는 경기불교문화원 원장님 그리고 간사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의 흐름을 초월한 고찰과 신찰을 답사한 하루!! 돌아오는 길에 우리 일행 모두는 부처가 되어있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경기도

파스타 하우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동 1-5
중동BD 2F T.031-255-8843

세무사

전 종 환

TEL. 031)246-1177
FAX. 031)257-5533

옛날 낙수리

<낙지한바리 수제비>

낙수리해물탕 · 아구탕 · 낙지전골 · 해물파전 · 낙지찜

대표 주 희 연

체인점 문의 및 예약 244-8206 / 247-8716



선가귀감(禪家龜鑑)

도업(道業)스님/ 본원 경전강좌강사



우리에게 서산대사로 잘 알려진 스님은 중종(中宗)15년(1520) 3월 평안도 안주에서 출생하셨다. 속성은 완산 최씨, 속명은 여신(汝信)이고 법명(法名)은 휴정(休靜)이며, 호는 청허(淸虛)인데, 스님이 오랫동안 묘향산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서산대사(西山大師)'라 하였다. 스님의 출가동기를 살펴보면, 15세때 동학들과 함께 지리산을 유람하게 되었는데, 이때 승인장로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여신을 세심히 보고는, 너의 기골이 청수하니 분명히 凡類가 아닌 듯 하다. 마음을 돌려 심공급계(心空及第)를 하여라. 그리하여 세간의 명리심을 아주 끊어버려라. 유생(儒生)들의 업이란 비록 종일토록 수고를 하지만 백 년의 소득은 한날 허명(虛名)일 따름이니 실로 애석한 일이 아니냐? 하면서 산중에서 제일 법이 높고 덕이 높은 부용영관대사(芙蓉靈觀大師)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는 영관 문하에서 발심하여 3년이 되던 어느 날 밤, 홀연히 마음에 깨달아 집착하는 바가 있게 되었다. 그는 기쁨에 넘쳐 다음과 같은 계송을 읊었다.

홀연히 창밖에서 두견이 우는 소리 들리더니 (홀문두자제창외 忽聞杜宇啼窓外), 보이나니 봄동산이 모두 다 내 고향이었네 (만안춘산진고향 瞞眼春山盡故鄉) 또 어느 날 이렇게 한 수를 읊었다.

물길어 돌아오다 홀연히 머리를 돌이킬 즈음에 (급수귀래홀회수 汲水歸來忽回首)

푸른산 수 없는데 흰구름 속에 묻혀 있네 (청산무수백운중 靑山無數白雲中)

그 이튿날 아침에 여신은 스스로 머리를 깎고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 차리리 평생을 명칭한 천치가 될지언정 결코 문자법사(글만 잘 하는 법사)는 되지 않으리라. 그리하여 경성일선(慶聖一禪) 선사를 수계사(授戒師)로 부용영관대사를 전법사로 승인장로를 양육사로 하여 더욱 철저한 불교수행에 들어갔으며, 법명을 휴정이라 했으니, 그때 나이 18세였다. 5년을 지낸 어느날, 도반을 찾아 용성(현재의 남원)으로 갔다오던 중 역성촌이란 마을 지나다가, 한낮에 닭 우는 소리에 문득 마음자리를 확연히 깨닫고 오도송(悟道頌) 2 수를 지었다.

머리는 희지만 마음은 늙지 않는다. 옛사람이 일찍이 말했거니 (발백비심백고인증루설 髮白非心白古人曾漏洩)

꼬끼오- 하는 소리 듣는 찰라 장부의 할 일 다 마치었네 (금청칠성계 장부능사필 今聽一聲鷄 丈夫能事畢)

홀연히 본래의 내 집에 돌아오니, 모든 것이 다 이것뿐이구나 (홀득자가저 두두지차이 忽得自家底 頭頭只此爾)

팔만사천의 대장경도, 본래 이 하나의 빈 종이일 뿐이로다 (만전금보장 원시일공지 萬千金寶藏 元是一空紙)

『선가귀감(禪家龜鑑)』이라고 한 '선가(禪家)'는 참선하는 사람들, 또는 선(禪)하는 종파를 총칭한 것이며, '귀감'은 앞길을 밝혀주는 지침이며, 그 마음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그 주체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선(禪)'이라는 한 글자에 있다. '禪'은 실로 동양 정신문화의 진수로서, 이 한 자가 내포하고 있는 심오하고 광범위한 뜻은 실로 만여 권의 불전요체(佛典要諦)가 이 한 자에 총 집약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 禪(선)을 통하여 우주·인생·정신·생명계의 모든 비밀을 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말하는 '禪'은 구체적으로는 '지·관·정·혜'로써 풀이되는데, 그 내용은 소승·대승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풀이되고 그 방법도 여러 가지로 발전되었다. 중국에서 발달된 선종은 인도적인 '선나'·'지·관'·'정·혜'와는 범주를 달리하여, 자기 마음의 본원(本源)을 직관하여 불성(佛性)을 개발함을 주지로 '모든 경전 문자에 의지하지 않고 교(敎)밖에 따로 전하여 왔다'는 깃발을 세우고, 또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자성(自性)을 보아 성불한다'고 주창함으로써 인도적 선(禪)과는 차이와 그 특수성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 천명한 선지(禪旨)는 중국에서 발전되어 온 '교외별전(敎外別傳)'을 그 주지로 하였다.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는 주로 '간화선'을 지침으로 하여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방법을 천명함으로써 그 귀감을 삼게 한 것이다.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동물로서 옛적에 미래를 점치는 데 썼던 것이며, 거울은 모든 물체의 모습을 환하게 비추어 밝히는 물건이다. 따라서 '귀감'이라 함은, 선객이 마땅히 밝아나가야 할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길잡이이며, 거울이라는 뜻이다. 『선가귀감(禪家龜鑑)』의 찬술동기(撰述動機)를 살펴보면, 첫째, 당시 승려들의 수학태도 개선을 위해 즉, 이전의 學佛者들은 佛說만을 말하고 실천했으니 당시의 수행자들은 사대부들은 글만 배우고 외우면서 중히 여길 뿐 불타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음에 대해 그것을 비판하고 올바른 수행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 저술. 抑佛의 환경속에서도 불법의 올바른 이해나 수행을 위해 힘쓰지 않는 승려들의 수학형태를 비판하고 개선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방대한 대장경의 내용을 보다 간명직절하게 요약하여 수행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즉, 대장경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 불법을 배우는 자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그것을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저술. 서명이 명시된 경전과 그렇지 않은 경전등 수많은 경전과 조사의 어록 내용들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셋째, 排佛의 역사속에서 선법의 부흥을 위해 즉, 유학사상을 극복하고 불법, 특히 선법을 드높여 불타의 가르침을 흥성시키기 위해 저술. 당시 유학사상의 극복을 선교의 융화와 禪主敎徒의 관점에 의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저술했다.

넷째, 불교입문의 참고서로 사용 즉, 惟政은 跋文에서 묘향산에 10년을 머물면서 50여권의 경론과 어록을 보다 요긴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으나 이해하지 못하자 제자들의 미혹함을 깨우치기 위해 각 어구마다 주석을 달고 풀이했다고 밝히고 있다.

『선가귀감(禪家龜鑑)』의 내용개관은 1) 佛法의 근본 2) 禪法의 강조 3) 助道法의 說 4) 출가인의 본분과 생활자세 5) 禪宗五家의 法統 및 家風 6) 臨濟宗旨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정리**

후원금과 회비를 내주신 분 (6. 1 ~ 6.30) (금액 : 1,473,220원) 정성어린 후원금 감사합니다.

김태제	이기순	진철희	강영진	김기현	김말수	장옥훈	이태순	조병희	윤광숙	주인수
박경아	이선우	김순자	윤영무	구광국	이옥자	김영동	이태갑	배민한	김원기	
장용집	권승하	김익순	정무근	현병국	김준옥	한경숙	송호운	양정례	윤창구	
홍인숙	이화순	양준영	권중서	박청용	안영찬	이난호	김정숙	심화식	최숙면	
최명길	김영희	조창운	이상범	이기원	이영옥	박선현	염규용	윤기수	최홍엽	
김미월	이대곤	김향숙	강재수	이임성	주영월	김정수	이병일	이정배	조권형	

특별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 부처님말씀 홍보에 사용 하겠습니다.

김낙천(101,000) 전종환(150,000) 파라가테5기 동문회(100,000)

KTF 신영통 전속대리점

011, 017번호 그대로 가입하세요

031-255-5800

대표 안 창 호

Phone A/S대행 신규가입,

요금수납, 기기변경

명의변경, 보상판매

세종 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염 규 용

TEL. 031)212-0033

H.P 018-313-3838



경기불교 소식

● 백인에게 듣는다(열여섯번째) 열린 법회 개최

날이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는 “백인에게 듣는다” 종립 은혜사 승가대학원장이신 지안스님의 열린 법회가 지난 6월 19일 “불교의 대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경기불교문화원 큰법당에서 여법하게 개최되었습니다.



● 6월 사찰 환경답사



지난 6월 20일(일)에는 강원도 고성군 냉천리에 위치한 금강산 건봉사,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에 위치한 휴휴암을 다녀왔습니다. 굳은 날씨였지만 두 사찰 모두의 빼어난 경관과 오랫동안 보는 동해바다는 모두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 줄기에 충분했고, 특히 건봉사의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와 휴휴암의 신비로운 바위들과 쉬고있는 모습으로 나투신 관세음보살상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 불국사 사찰미술특강

지난 6월 25일(금) 성구스님의 불교미술-불국사 조형미술-특강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로만 알고있던 불국사의 조형미술과 여러 가지 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 법당, 탑, 부도, 주춧돌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의 불심과 장인정신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주셨던 좋은 장면들과 부처님의 범어에 멜로디를 더한 한 외국여가수가 불렀던 노래는 아직도 귀에서 맴도는 듯 합니다.



● 제 4회 기초교리 수료식 및 제 5회 기초교리 개강식

경기불교문화원 문화동산에서 지난 6월 30일 수요일 기초교리 수료식 및 개강식을 가졌습니다. 올바른 불법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첫걸음을 떼게 된 불자님들에게 축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7월 행사 안내



● 중국 오대산 성지순례 실시

본원 진철희 원장은 경기불교문화원 회원 11명과 함께 중국 오대산을 7월 7일(수) ~ 7월 11일(일) (4박 5일) 일정으로 순례한다. 순례장소는 북경→만리장성→오대산→현공사→운강석굴→구룡벽→보제사→영교사→영응사→현통사→탐원사→수상사→태원→쌍탑사→자금성→북경의 일정으로 순례합니다.

● 갑신년 8월 백중 영가위패 접수 받습니다

- 언 제 : 불기 2548년 8월 30일 오후 2시
- 어 디 :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
- 동 참 금 : 1가족당 10,000원
- 문 의 : 경기불교문화원 용민숙 간사 031)251-1083

“7월 사찰환경 답사” 안내는 1면을 참고해 주시고, 8월달 “백인에게 듣는다”는 쉽니다.

여름학기 수강생 모집

수강기간 3~5개월 과정

과 정	과목명	강사명	수강인원	수강료	수업내용	수업일	비고
불 교 강 좌	불교의식반	권혁찬	20명	3개월 60,000원	불교의식(목탁, 집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수시
	기초교리	전문법사	30명	3개월 50,000원	불교기초교리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수시
	경전강좌	도업스님	30명	12주 80,000원	달마사행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7월 2일 개강
	참선강좌	김태완	20명	4주 20,000원	육조단경	매월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오후 1시	수시
	불교문화대학	대덕스님	40명	4주 50,000원	불교전문인 양성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8월개강
문 화 강 좌	요가반	장순이	20명	3개월 90,000원	생활요가(주2회)	매주 화/목요일 오전 11시	수시
		문명순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수시
	단월드	백종복	20명	3개월 60,000원	단월드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	수시
	우리춤 배우기	이순자	20명	5개월 100,000원	기본무, 살풀이, 한국무용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9월개강
	다도반	윤영예	20명	3개월 100,000원	생활차예절법 다경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수시
	생활역학	보현진열	20명	12주 100,000원	역학, 운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수시
			20명	12주 300,000원	명리전문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수시
	중국어회화	최경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중국어회화	매주 월/수요일 오후 4시 30분	초, 중등생 / 수시
	영어회화	박영희	20명	3개월 60,000원	생활영어 회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주부반 / 수시
	경락반	고철성	20명	3개월 60,000원	한방경락, 건강관리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수시
	백인에게 듣는다	대덕스님 교수진	100명	무료	열린법회	매월 3주 토요일 오후 3시	8월 연강
	사찰환경 답사반	전문안내원	40명	1일 : 30,000원 2일 : 60,000원	사찰 환경답사	매월 첫째주 또는 셋째주 일요일 오전 7시	수시

■ 회원가입안내

불교문화원에서는 회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강의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1년간 "회원등"을 밝혀드리며 후원 회원님들의 회비는 문화원의 운영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배려와 나눔과 생명공동체 실현에 쓰여집니다. ※각종 후원금은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금은행 : 신한은행 602-02-512120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 후원회원 : 월 10,000원 (초, 중등학생 : 5,000원) 이상을 납부하는 개인 이나 단체
- 전화주시면 은행에 가실 필요없이 CMS로 즉시 처리하여 드립니다. TEL.031-251-1083/ 257-1083